



### 우리시대 참스승

### 포천중학교 교장 차태남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모델 구축

오는 2월20일 정년 퇴임식으로 37년5개월 간의 교직을 떠나는 포천중학교 차태남(63·사진) 교장은 1971년 의정부중학교에 첫 부임한 이후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헌신해온 교장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특히 차 교장은 지난 2000년 9월1일 포천중학교에 부임하여 5년6개월 동안 '깨끗한 학교', '실력 있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차 교장은 교사들에게 "학교를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명(命) 받고 왔으면 무얼 남기고 떠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 교장은 의정부에 근무할 당시 의정부 중·고등학교 사이클팀을 창단해 전국대회에 우승을 하고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영예를 안아 기뻐할 수 있었던 사실이 교직에서의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고 회고한다.

포천에서 5년6개월 동안 차 교장은 "포천사회가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 "교장으로 부임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장은 교직생활동안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만들기다. 학교장이 아무리 잘 나고 또 교사들이 불철주야 학생들을 위해 애를 써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교육은 반 토막의 성과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와 함께 연계하는 교육을 하고자 했으며 교장실을 늘 개방하여 그들과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생, 교사가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학교만들기다. 애국조회를 할 때마다 학교의 주인은 교장도 교감도 아닌 바로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학교의 명에도, 깨끗한 교정도, 주위의 학교에 대한 평가도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학교에 부임을 해 오면 몇 년 있다가 떠날 학교로 생각하지 말고 내 고향처럼, 이 지역에서 맡긴 아이들에게 최선의 사랑과 정성을



### '학교를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

다하라고 강조한다. 차 교장은 퇴임을 앞두고 포천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과 내 학교를 위해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더 명예롭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임후의 계획에 대해 차 교장은 "몇몇 사립학교에서 교장으로 초빙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교장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한다는 조건이라면 응하겠지만 이사장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의 자리라면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차 교장은 "퇴임후에는 그동안 방관했던 내 자신에게 좀 더 깊이 몰두해 볼 생각이며 건강관리를 하고 체력을 길러 높은 산에도 오르고 싶고,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지인(知人)들도 찾아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포천중학교 교무부장은 차 교장에 대해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은행관에서 체육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급식소가 건립되어 도시락 걱정이 사라졌으며 여학생, 과학실 협실, 음악실, 미술실, 남녀 교사휴게실, 특히 주변의 많은 학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전자철판이 갖추어진 컴퓨터실 등 많은 교육

시설이 교장 선생님 재임기간동안 교장선생님께서 이루어내신 업적"이라고 밝히고 "포천중학교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좀 더 많은 향내로 이웃을 훈훈하게 하시며 늘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힘찬 제2의 인생을 열어 가실 교장선생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현 포천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차태남 교장선생님은 극심하던 폭력씨름과 교내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 과학고에 진학하는 학생이 나오고 매년 외국어고등학교와 명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배출하셨다"며 "이같은 훌륭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제48회 스승의 날을 맞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경기일보가 주최하는 경기시대대상을 수상하여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나아가 포천교육의 발전상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체육을 전공한 차 교장은 "학교체육의 비전에 대해 엘리트 체육은 인기종목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여러 가지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활체육은 예산관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생활동으로 학교측에 문화정착, 다양한 독서교육, 역도부와 축구부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내실 있는 각종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 전개,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성화, 교과와 연계한 내 고장 탐방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했고, 명량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장교사들의 등교지도, 교내 폭력이 적은 학교, 화목한 교무실 분위기, 교직원 장학회 운영, 학교 우수 경영자 표창 등의 실적을 일구기도 했다.

특히 차 교장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호응의 필요성 제고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대화하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 경영 방침으로 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의정부로 전근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포천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된 차 교장의 모습에서 교장의 진정한 역할을 읽을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교사 탐구

38

### 영중초등학교 교무부장 황효출

"지식보다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생들을 교육해 온 교사"영중초등학교 교무부장 황효출(46·사진) 교사를 만났다.

황 교사는 울진군 평해초등학교, 평해중학교, 서울중대부고를 졸업한 후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6월1일자로 충남 홍성군 구황초등학교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으로 지난 26년동안 초등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다.

황 교사는 처음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축구를 하는 등 함께 했던 추억들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며 지금은 어른이 된 제자들과의 만남 또한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한다.

지식보다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지도에 나선 황 교사는 아침자습시간과 종례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시사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 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습득하는



## 시사적인 사회현상 알기 쉽게 설명

### 인성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실적보고서 완성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효과는 1-2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황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자료로 '맑은 눈 고운 손'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황 교사는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영중초등학교에서 지난 3년 동안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평소 익혀온 예의범절 등 인성교육으로 타 학교 출신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학교에서 영중초등학교 출신 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장애우와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효과는 상급학교에서도 영중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솔선 수범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성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은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은 버거운 게 사실이다. 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황 교사는 포천교육의 비전에 대해 "수도권 도시에 비해 아이들의 학력수준이 저조하며 학교행사 시에도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영중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학교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결국 교육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도시에 비해 시골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육도시로서의 여건조성을 한다면 수준 높은 학생들의 배출이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황 교사는 영중초등학교 교육기획부장으로 학교장의 확고한 경영방침에 따라 학교행사 및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지침 및 이해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하여 신규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과 교과 지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자료에 관한 장학자료 및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참여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운영을 위해 일선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 전달 요원 강사로 활약하여 교과와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수업전략 이해와 교재 연구로 교사들의 교육과정의 이해와 수업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협동장에서 수업공개 추진 및 학교특색 사업 발표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수업기술의 향상과 연찬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에서 교사들의 수업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일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전략을 습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황 교사는 위와 같은 실적으로 지난해 스승의 날인 5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 교사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최인호 작 '길 없는 길'을 들었다. 최인호 문학의 백미라 불리며 10년 동안 1백만부 이상 팔린 '길 없는 길'은 위대한 인간 부처 경허, 그리고 한없이 매려적인 사람 경허, 구한말 한국불교의 흥흥조인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를 축으로 2천6백년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오는 한국 불교의 장엄등을 오늘에 다시 밝혀 인간의 길을 보여준다.

황 교사는 지난 1998년 3월1일 신북초등학교에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포천초등학교를 거쳐 영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포천은 물론이고 산 높은 교장으로 학생들이 순진하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등 순박한 시골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황 교사가 꾸준히 추진해온 인성교육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환경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포천시 교육여건의 발전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는 황 교사처럼 훌륭한 교사들의 연구실적을 잘 정리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초등 53명·중등 63명 과학영재 기초과정 수료

###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제1회 수료식 가져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채원석)은 지난 11일 1년 과정에 대한 수료식을 이룩 대진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과 김윤희 경기도교육청 제2청 과학산업과장 및 과학영재교육원 원생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2005학년도 영재교육 중에서 112시간의 기초과정을 이수한 초등 과학영재 54명과 중등 과학영재 63명이 수료증서를 받았다.

이들 과학영재들은 2.5대 1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었고 지난해 3월19일 입학식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와 방학기간 중 집중교육시간에 대진대 이공대학관에서 기초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한 심도 깊은 과학영재교육을 받았다.

기초과정을 수료한 과학영재들 중에서 초등 26명, 중등 31명과 기초과정 미이수자로 각종 과학관련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진대학교 사회과학관 5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제1회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다.

있는 심화과정 지원자 중에서 초등 9명, 중등 10명이 2006학년도 심화과정 진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진대 과학영재교육원의 기초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9명에게는 우수상장과 부상(USB메모리)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2006학년도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에 지원하여 선발된 과학영재들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고양시 51%, 의정부 11%, 서울 20%이고, 안산, 김포, 부천, 안양에서까지 통학하고 있다.

포천 학생들 중에 선발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재교육원 측의 설명이다.

채원석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화학과 교수)은 "지역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포천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지 않지만 가까운 곳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많은 학생이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영어과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 2종 개발

### 농어촌 등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여건 반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하여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영어과 특별 보충과정 프로그램 2종을 개발 보급하여 담당 교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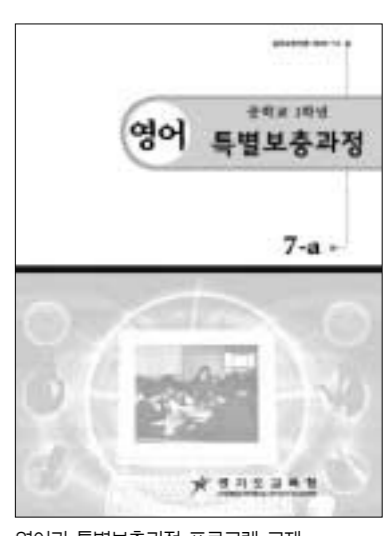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영어과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에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자체 개발한 자료와 달리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여건을 반영하고, 영어과 7학년(중학교1학년)의 특별보충과정 대상자 내의 수준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특히 기초 단계를 기본·도약의 2단계로 이원화하여 단계별로 20차

시 분량의 기본과정과 20차시 분량의 도약과정으로 나누어 선택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 학력 이 부족한 학생들의 수준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매 차시는 문법 영역, 의사소통 영역, 문법요소와 의사소통 기능의 종합적 재학습, 학습내용을 재미있게 익혀보는 코너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 과정을 그림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인 것도 특색 있는 점이다.

개발된 자료는 경기도의 모든 중학교에 보급하여 금년 3월부터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파일은 교육정책과 자료실 및 경기



영어과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 교재

도교육청지원센터 자료실에 탑재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06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영어과 중학교 2, 3학년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18명에게 총 2천40만원 지급기로 의결

### 동천장학회 2006년도 정기 이사회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는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 이사회를 지난 13일 포천 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2006년도 장학금 지급은 대학교 진학자 6명에게 각 220만원, 고등학교 진학자 12명에게 각 60만원씩 총 2천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장학금 지급 일정은 내달 9일까지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내달 13일 장학회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7일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확정했다.



동천장학회는 지난 13일 포천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18명에게 총 2천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수동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윤종성의 마국어따라하기**

19. 이 제품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I think you're very interesting in this product.  
아이빙 유아베어루인츠웨스트링 디스프라다.  
\*그럼요. 돈 좀 벌 것 같은데요.  
Yes, I am. I believe that can make money.  
에스아이엠, 이음리브랫캐익머니.  
20. 이 음식이 군침을 돋게 하네요.  
This food makes me drool.  
디스후웃메인스미드루물.  
\*배가 고프신가 봐요.  
I think you feel hungry.  
아이빙유유허그리.

문의: 윤종성  
(017-723-4977)cdlyoon@nate.com



## 대진대학교 신입 이원우 총장 사퇴

### 학교법인 학위수여식 전까지 총장선임

지난 1월1일자로 임명된 대진대 총장이 종교상의 이유로 총장직 진입도 못한 채 10일 만인 11일 사퇴해 최단기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신입 이원우 총장은 전후속 신자로서 선임 전에 전후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이사회에

서 총장선임을 의결해 총장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종단임원들의 출근저지부정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학교법인 박동기 이사장은 "대진대학교 2006년도 학

위수여식 이전까지는 총장선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진대학교 교정진 교수협 의회장은 "총장선임 이전에 교수협 의회가 제시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추천공고를 내고 총장후보를 접수하고 접수된 후보자들

을 충분히 검증하여 상위의 몇 후보자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